
 금융위원회	<h2>보도 참고 자료</h2>			 산업통상자원부
	보도	2017년 1월 20일(금) 조간 (인터넷, 방송, 통신 1.19 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안 창 국(02-2100-2860)	담 당 자	전 수 한 사무관 (02-2100-2861)
	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장 이 재 근(044-203-4530)		허 은 수 사무관 (044-203-4534)
	한국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장 성 시 호(02-787-0661)		백 준 영 팀장 (02-787-0666)
	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서 중 균(02-2090-9110)		황 인 정 팀장 (02-2090-9115)
	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 정 재 학(02-6009-3013)		길 창 민 팀장 (02-6009-434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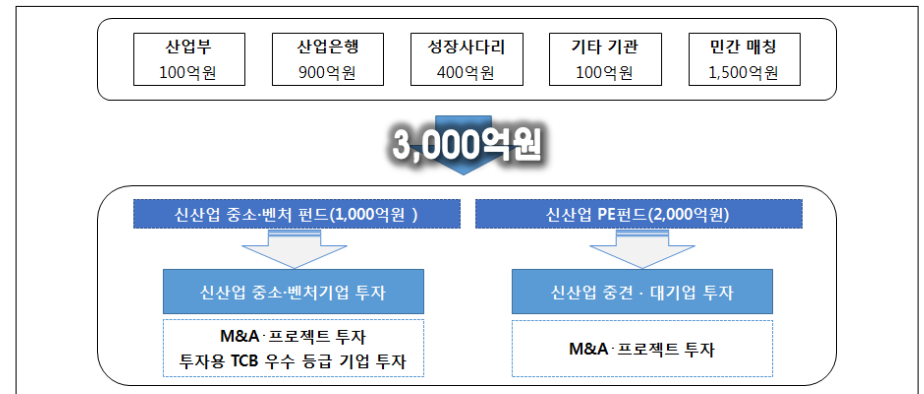
4차 산업혁명 시대, 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한다.
 - 산업부·금융위(금융기관), 3,000억원 규모의 펀드 신규 조성 -

-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,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 **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설** 예정이다.
 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와 금융위원회(위원장 임종룡)는 새로운 新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Key-Tech에 투자하기 위해 **3,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할**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이번 펀드는 산업부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**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공동으로 조성하는** 대형 펀드로,
 - 高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**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사례**라고 할 수 있다.

□ 동 펀드의 규모, 구조 및 투자 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.

- (투자 규모) 동 펀드는 총 3,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,
 - 산업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, 산업은행,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·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 재원을 출자할 예정이다.
- (펀드 구조) 기업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, **중소·벤처펀드(500억원 × 2개)와 PE펀드(2,000억원)로 구분하여 조성할** 예정이다.

【 펀드 주요 출자자 및 구조 】



- (투자 방향)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산업 분야 해당 기업이며,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
 - 사업재편을 위한 M&A(기활법 승인 기업), Buy R&D(기술혁신형 M&A) 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**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**하며,
 - 중소·벤처펀드의 경우, 운용사가 '투자용 TCB 평가'를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확산도 기대된다.

* Tech Credit Bureau : 기존 신용평가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하여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

【신산업 적용 기준】

□ 12대 신산업 (신산업 민관협의회, '16.12.21)

- ① 시스템 산업 : 전기·자율차, 스마트·친환경선박, IoT가전, 로봇, 바이오헬스, 항공·드론, 프리미엄 소비재
- ② 에너지 산업 : 에너지신산업(신재생에너지·ESS·AMI 등)
- ③ 소재부품 산업 : 첨단 신소재, AR·VR, 차세대 디스플레이, 차세대 반도체

□ 新성장 공동기준 (新성장 정책금융센터, '16.12.30)

- 정부 발표 주요 신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기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성장 분야로 선정한 일반기준으로 구성(9대테마, 45개분야, 275개)
 - * ①첨단제조·자동화, ②화학·신소재, ③에너지, ④환경·지속가능, ⑤건강·진단, ⑥정보통신, ⑦전기·전자, ⑧센서·측정, ⑨문화·콘텐츠 등

□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“금번 펀드 조성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서로 손을 잡고 투자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□ 금융위원회는 “동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결합하여 마중물 역할을 하고, 민간자금 참여와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조성한 것으로서, 앞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동 펀드는 출자공고(1월), 펀드 운용사 선정(4월), 민간 출자자 모집(4월~) 등을 거쳐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,

- 향후 기관별 출자 재원, 추가 출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